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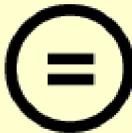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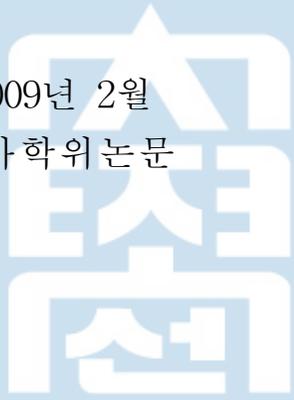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CHOSUN
UNIVERSITY
1946

2009년 2월
박사학위논문



[UCI]I804:24011-200000237735

조선
CHOSUN

일부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두피·모발
건강상태와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왕혜자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
CHOSUN

일부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두피·모발
건강상태와 관련요인

Scalp · Hair Health Condition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Some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 in Cosmetology

2009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왕혜자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
대학교

조선
대학교
CHOSUN

일부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두피·모발
건강상태와 관련요인

지도교수 류 소 연

이 논문을 보건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왕혜자

왕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인
위원	조선대학교	인
위원	조선대학교	인
위원	광주여자대학교	인
위원	조선대학교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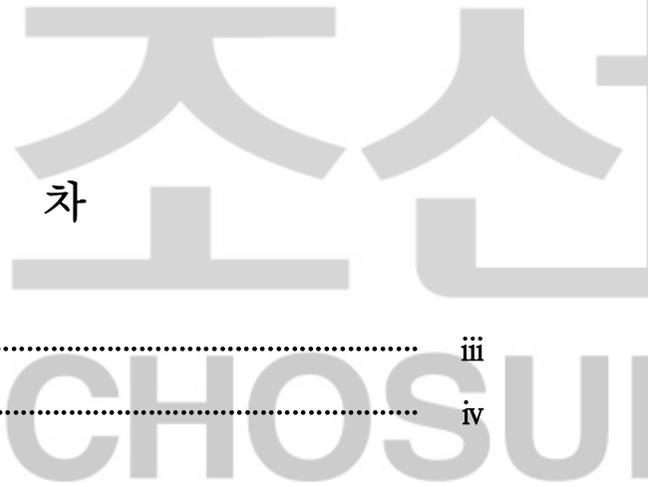


표 목 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II. 연구방법	3
A. 연구대상	3
B. 자료수집 방법	3
C. 분석 방법	5
III. 연구결과	6
A. 대상자의 특성	6
B. 두피·모발 자가평가와 조사 특성과의 관련성	16
C. 두피·모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IV. 고찰 26

V. 요약 및 결론 31

참고 문헌 32

부록(설문지) 34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6
표 2. 생활습관 관련 특성	7
표 3. 식습관 및 체형 관련 특성	8
표 4. 식품섭취 빈도	10
표 5. 건강상태 관련 특성	11
표 6. 대상자의 모발 특성	12
표 7. 두피의 특성	13
표 8. 두피 및 모발 관리습관 특성	14
표 9. 자가평가에 의한 두피·모발건강상태 특성	15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16
표 11.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17
표 12. 식습관 및 체형관리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18
표 13. 식품섭취 빈도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20
표 14. 건강상태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21
표 15. 모발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23
표 16.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ABSTRACT

Scalp · Hair Health Condition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Some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 in Cosmetology

Wang, Hye-Ja

Advisor: Ryu, So Yeon MD, MPH,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treatise author attempted more comprehensive approach for study on health factors of scalps and hair. For this purpose the author tried to find out factors influential to health of scalp and hair with focus on students of women's college in certain area who are majoring in beauty culture and are knowledgeable about scalp and hair. This author in this connection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on factors related to health of scalp and hair and data which are practically helpful in preventive management of scalp and hair. Questionnaires of 469 persons were collected from Sept. 1, 2008 to Oct. 9, 2008 and these data were analysed using by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related factors with health of scalp and hair. Result of such analyses were as follows. Based on self appraisal on condition of scalp and hair it was found that normal persons were 58.0%, persons who require general management were 33.3% and who require in-depth management were 8.7%. Regarding relationship with condition of scalp and hair significant different could be observed depending on age, length of time for sleeping, type of physical build, weight control and dietary habit of the persons concerned. In connection with eating specific foods sesame, beans and

depending on menstruation condition, use of contraceptives, stress score and condition of hai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t. Result of analyzing factors affecting condition of scalp and hair showed that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health of scalp and hair between natural hair and artificial hair was 1.83 (95% CI: 1.03-3.27). When persons eating eggs more than once a week were compared to those eating it eggs more than once a month OR (95% CI) was 0.31 (0.16-0.61). When persons eating sesame more than once a week were compared to those eating it more than once a month OR (95% CI) was 1.93 (1.11-3.36). When persons eating beans more than once a week were compared to those rarely eating OR (95% CI) was 1.98 (1.02-3.83). In terms of dietary habit when cases requiring definite improvement were compared to those with good habit OR (95% CI) was 4.17 (1.82-9.54). With respect to physical build when slim persons were compared to obese persons OR (95% CI) was 2.82 (1.36-5.86). The higher the score of stress was OR (95% CI) was 1.01 (1.00-1.03). When cases of not taking any contraceptive pills were compared to cases of taking such pills OR (95% CI) was 4.23 (1.58-11.31)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ly each female students major in cosmetology is demanded to hav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ir condition of scalp and hair and to have correction of their behavior for various factors including proper scalp and hair control habit, dietary habit and control of stress etc.. In future continuous research and report will be required for health of scalp and hair as soon as preparation of index for grasping objective condition of scalp and hair is available.

Key word : Health of Scalps and Hair, Related Factors

I. 서론

인체를 덮고 있는 피부조직은 각 부위에 따라 얼굴, 손등, 손바닥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되어지며 그 중 두부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의 피부조직을 두피라 한다(이영미, 2004). 건강한 두피는 청백색을 띠며 맑고 투명하고 적당한 지방막으로 싸여 있으며 정상적인 각화작용을 하고 한 모공에 모발이 2-3개 정도 있다.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피에 가벼운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 촉진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조정혜 등, 2003). 두피 및 모발은 일상생활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두피의 좋지 못한 환경은 모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두피의 건강상태가 잘 유지될 때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모발의 건강함도 유지할 수 있다(오강수, 2006).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모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발에 대한 청결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모발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연출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피부나 손과 마찬가지로 항상 외부와 접하게 되고 두피에서 분비되는 피지로 인해 쉽게 더러워진다. 뿐만 아니라 공해, 스트레스, 비만, 다이어트, 인스턴트 음식, 잦은 염색과 탈색제의 사용, 새로운 기구의 잘못된 사용, 모발제품 남발, 잘못된 모발관리 등으로 두피와 모발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탈모나 모발손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김명주 등, 2006).

일반적으로 20-30대의 여성들은 두피·모발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두피·모발의 건강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다. 특히, 영양섭취 및 두피·모발건강을 위한 실천행위 및 제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두피·모발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여성들은 두피·모발관리 자가진단에서도 안전한 것을 알 수 있고, 모발건강실천행위를 잘하는 여성들이 건강한 두피·모발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정숙희 등, 2006). 여대생은 두피·모발관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취업 등의 이유로 모발 시술빈도가 많아지고,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과 모발건강관리는 성인 이후의 건강한 모발의 근원이 되므로 여자 대학생의 모발건강관리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문인옥와 조성선, 2000).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전공지식과 관심이 풍부한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태도 및 실천행위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두피·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 또한 나온 바 있다(오선영 등, 2007). 이에 일반인의 두피·모발관리를 담당하게 될 미용전공자들에게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천방법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두피·모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모발에 대한 손상정도나 대상자의 행위관련성 분석이 대부분이며, 단순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관심도 파악에만 국한되어 있고, 두피·모발에 대한 관련된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의 여성들 중 두피·모발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지역 미용전공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두피·모발상태를 알아보고, 두피·모발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모발관리 등 다양한 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의 두피·모발건강상태와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피·모발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춘 미용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의 선택은 조사협조를 허락한 교수의 담당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의 선정은 충청남도 4개 대학, 광주광역시 1개 대학, 경상남도 1개 대학으로 미용학을 전공하는 6개 대학의 470명 여학생 중 미기재 부분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6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B.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2008년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 대학 헤어전공 교원 1명과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명한 뒤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일반적 특성, 식생활습관, 스트레스, 모발특성, 두피특성, 두피 및 모발 관리습관, 두피자가진단 등 총 14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내용은 연구자가 국내·외의 관련문항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학년, 경제 상태인식, 한 달 용돈을 조사하였고, 생활습관에 관한 항목은 음주상태, 흡연상태, 운동여부, 수면시간, 신장, 체중, 자각하는 체형, 체중조절, 식습관상태, 식품섭취빈도로 구성하였다. 자기 보고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kg/m^2)를 계산하였고, 체질량지수가 $25 \text{ kg}/\text{m}^2$ 미만인 경우를 정상으로, $25 \text{ kg}/\text{m}^2$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 식습관상태 측정은 부산시 사하구 보건소에서 주민의 식습관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규칙적인 식생활 5문항, 균형 잡힌 식생활 7문항, 식생활과 건강 8문항으로 구성되어 세단계로 응답케 하였으며, 예는 5점, 가끔은 3점, 아니오는 1점

으로 분류하여 전체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양호’, 69-30점이면 ‘개선필요’, 30점미만 시 ‘개선필수’로 하였다. 식품섭취빈도에 대한 조사는 두피·모발에 좋은 식품은 선행연구(김순옥 등, 2003; 노영희b, 1999; 이점숙, 2003; 한영숙 등, 2007; Healing hair Care Institute, 2002)를 참고하여 미역, 다시마, 김, 깨, 콩류, 등 푸른 생선, 우유, 계란, 녹차를 선택하였고, 섭취 빈도를 거의 안 먹음, 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먹는 경우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건강상태로는 급 만성 질환여부, 생리의 규칙성, 피임약 복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생활환경과의 거래 작용에서 일어나는 DeLongis 등 (1988)이 사용한 척도를 기본으로 김정희(1995)가 수정,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를 전혀 아니다(0)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3)까지 Likert 4점 척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대상자의 스트레스정도는 해당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정도가 심해짐을 의미한다.

두피·모발특성으로는 모발상태, 모발의 굵기, 모발의 탈락정도, 모발손상정도, 자각한 두피유형, 두피이상증상, 두피치료(6개월 이내, 1년 이내)여부, 두피·모발관리 경험, 모자사용, 가발사용 여부, 발모제, 샴푸횟수, 샴푸 행굼 횟수, 헤어 스타일링 제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두피·모발자가진단서는 (주)뷰토피아의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모발과 두피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두피·모발자가진단 시 사용빈도가 높아 선택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고, ‘예’라고 대답한 항목이 10개 이하인 경우는 정상자, 10개 이상인 경우는 일반관리대상자, 15개 이상인 경우는 심층관리대상자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관리대상자와 심층관리대상자를 합하여 관리대상자로, 정상자를 정상자로 분류하여 관련요인을 알아보았다.

C.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Version 12.0으로 분석하였다. 일부지역 미용전공 여대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및 체형관련, 식품 섭취, 건강상태, 모발특성, 두피특성, 두피 및 모발 관리, 모발 제품, 자가 평가에 의한 두피·모발건강상태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피·모발 자가 평가에 의한 두피·모발상태와 사회학적특성, 생활습관 특성, 식습관 및 체형관련 특성, 식품 섭취빈도, 건강상태, 모발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관리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A. 대상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469명 중 19세 미만은 47.3%, 20세 이상 24세 이하는 43.9%, 25세 이상 29세 이하는 3.0%이었고, 1학년이 46.3%, 2학년이 45.2%이며, 경제상태인식의 경우 상은 6.4%, 중은 64.8%이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으로는 21만원-30만원이 26.7%, 31만원-40만원이 24.5%, 41만원 이상이 27.2%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명	%
연령(세)	<19	222	47.3
	20-24	206	43.9
	25-29	14	3.0
	30<	27	5.8
학년	1	217	46.3
	2	212	45.2
	3	40	8.5
경제상태인식	상	30	6.4
	중	302	64.8
	하	134	28.8
한 달 용돈(만원)	<10	26	5.8
	11-20	70	15.7
	21-30	119	26.7
	31-40	109	24.5
	≥41	121	27.2

2. 생활습관 관련 특성

생활습관 관련으로는 음주는 현재 마신다가 81.9%이었고, 흡연은 현재 흡연자가 27.5%이었다. 운동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매일 한다가 8.5%, 주 1-3회한다가 32.2%, 하지 않는다가 59.3%이었으며, 수면시간은 6시간 이하가 39.9%, 7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51.7%이었다(표 2).

표 2. 생활습관 관련 특성

항목	구분	명	%
음주상태	현재 음주	384	81.9
	과거 음주	40	8.5
	비 음주	45	9.6
흡연상태	현재 흡연	128	27.5
	과거흡연	45	9.7
	비 흡연	293	62.9
운동여부	매일	40	8.5
	주 1-3회	151	32.2
	하지 않음	278	59.3
수면시간(시간)	<6	186	39.9
	7-8	241	51.7
	>9	39	8.4

3. 식습관 및 체형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가 작성한 신장과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계산하고 분류한 결과 정상이 97.3%이었다. 자각하는 체형은 마른 편이 13.9%, 보통이 45.8%, 비만이 40.3%이었다. 체중조절을 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37.7%가 감량을 해보았다고 하였다. 식습관상태는 양호하다가 12.8%, 개선요구가 85.7%, 개선필수가 1.5%이었다(표 3).

표 3. 식습관 및 체형관련특성

항목	구분	명	%
체질량지수 (kg/m ²)	<25(정상)	430	97.3
	≥25(과체중)	12	2.7
자각하는 체형	마른 편	65	13.9
	보통임	215	45.8
	비만	189	40.3
체중조절	감량	177	37.7
	안함	292	62.3
식습관상태	양호	60	12.8
	개선요구	402	85.7
	개선필수	7	1.5

4. 식품 섭취 빈도

연구 대상자들에게 두피·모발건강에 효과가 있는 식품군 중 대표적인 9개 식품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에 평균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미역은 월 1회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가 56.1%였으며,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24.0%이었다. 다시마의 경우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51.8%,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60.2%로 조사 되었으며, 김의 경우 주 1회 이상 섭취가 60.2%, 거의 섭취 안한다가 12.2%이었다. 깨의 경우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45.4%,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가 26.2%, 월 1회 이상 섭취한다가 28.1%이었다. 콩류의 경우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20.3%, 월 1회 이상 섭취한다가 30.0%,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49.7%이었다. 생선의 경우,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42.4%이었다. 우유의 경우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20.6%,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56.5%이었다. 계란의 경우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6.9%, 월 1회 이상 섭취한다가 16.1%,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77.0%이었다. 녹차의 경우,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가 34.8%, 월 1회 이상 섭취한다가 27.3%,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가 38.0%이었다(표 4).

표 4. 식품 섭취 빈도

항목	구분	명	%
미역	거의 안 먹음	112	24.0
	월 1회 이상	262	56.1
	주 1회 이상	93	19.9
다시마	거의 안 먹음	242	51.8
	월 1회 이상	161	34.5
	주 1회 이상	64	13.7
김	거의 안 먹음	57	12.2
	월 1회 이상	129	27.6
	주 1회 이상	281	60.2
깨	거의 안 먹음	124	26.6
	월 1회 이상	131	28.1
	주 1회 이상	212	45.4
콩류	거의 안 먹음	95	20.3
	월 1회 이상	140	30.0
	주 1회 이상	232	49.7
등 푸른 생선	거의 안 먹음	83	17.8
	월 1회 이상	186	39.8
	주 1회 이상	198	42.4
우유	거의 안 먹음	96	20.6
	월 1회 이상	107	22.9
	주 1회 이상	264	56.5
계란	거의 안 먹음	32	6.9
	월 1회 이상	75	16.1
	주 1회 이상	359	77.0
녹차	거의 안 먹음	162	34.8
	월 1회 이상	127	27.3
	주 1회 이상	177	38.0

5. 건강상태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건강상태의 경우 1달 이내 급·만성 질환이환이 있다가 14.8%이었다. 생리의 규칙성은 규칙적이다가 58.1%였으며, 피임약의 경우 복용한다가 5.6%이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평균과 표준편차는 60.8 ± 14.7 점이었다(표 5).

표 5. 건강상태 관련 특성

항목	구분	명	%
1달 이내 급·만성 질환이환여부	예	69	14.8
	아니오	398	85.2
생리의 규칙성	규칙	272	58.1
	불규칙	196	41.9
피임약 복용	예	26	5.6
	아니오	442	94.4
스트레스(점수)	평균±표준편차	60.8±14.7	

6. 대상자의 모발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모발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모발인 경우가 19.2%, 화학적 시술을 가한 모발이 80.8%이었으며, 모발의 굵기는 굵은 모발이 23.0%, 보통 모발이 47.1%, 가는 모발이 24.9%이었다. 모발의 탈락정도는 많다가 21.7%, 샴푸 시에만 빠진다가 31.8%이었으며, 없다고 답변한 대상자가 4.9%이었다. 모발 손상정도는 건강하다가 12.4%, 보통이 23.5%, 손상이 46.2%이었다(표 6).

표 6. 대상자의 모발특성

항목	구분	명	%
모발상태	자연모발	90	19.2
	화학적 처치모발	379	80.8
모발의 굵기	굵은 모발	108	23.0
	보통 모발	221	47.1
	가는 모발	117	24.9
	아주 가는 모발	23	4.9
모발의 탈락정도	평소에 많다	102	21.7
	샴푸 시에만 탈락	149	31.8
	걱정할 정도 아니다	195	41.6
	없다	23	4.9
모발의 손상정도	매우 건강	12	2.6
	건강	58	12.4
	보통	110	23.5
	손상	216	46.2
	매우 손상	72	15.4

7. 두피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두피상태는 정상이 36.7%, 건성이 18.5%, 지성이 30.5%, 민감성이 14.4%이었다. 두피에 이상 증상을 크게 탈모, 염증, 가려움과 비듬, 민감함으로 질문 하였으며 대상자중 탈모는 있다가 8.7%, 염증이 있다가 3.4%, 가려움과 비듬이 있다가 32.2%, 민감하다가 20.0%이었다. 최근 6개월 이내 두피치료를 받았다가 2.8%, 1년 이내 치료를 받았다가 1.9%이었다(표 7).

표 7. 두피의 특성

항목	구분	명	%
자각한 두피유형	정상	171	36.7
	건성	86	18.5
	지성	142	30.5
	민감성	67	14.4
두피이상증상	탈모	41	8.7
	염증	16	3.4
	가려움과 비듬	151	32.2
	민감함	94	20.0
두피치료(6개월 이내)	예	13	2.8
	아니오	456	97.2
두피치료(1년 이내)	예	9	1.9
	아니오	460	98.1

8. 두피 및 모발관리 습관 특성

두피 및 모발관리 습관 특성의 경우 두피·모발 관리 경험이 있다가 12.5%,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다가 52.7%, 가끔 착용한다가 45.2%이었다. 가발 사용 여부의 경우 예가 23.1%이었고, 발모제를 사용한다가 4.1%이었으며, 샴푸 횟수는 일주일에 1-2회가 2.1%, 매일 샴푸한다가 86.7%이었다. 샴푸 행균 횟수의 경우 3-4회가 41.3%, 헤어 스타일링제품 사용은 사용한다가 23.8%이었다(표 8).

표 8. 두피 및 모발 관리 습관 특성

항목	구분	명	%
두피·모발 관리경험	예	59	12.5
	아니오	410	87.5
모자 사용여부	안함	246	52.7
	가끔	211	45.2
	매일	10	2.1
가발 사용여부	예	108	23.1
	아니오	359	76.9
발모제	예	19	4.1
	아니오	447	95.9
샴푸 횟수	일주일 1-2회	10	2.1
	일주일에 3-4회	52	11.1
	매일 샴푸	405	86.7
샴푸 행균 횟수	1-2회	103	22.1
	3-4회	193	41.3
	5-6회	120	25.7
	7회 이상	51	10.9
헤어스타일링 제품사용	사용	111	23.8
	사용안함	356	76.2

9. 자가 평가에 의한 두피·모발건강상태 특성

자가 평가에 의한 두피·모발건강상태는 정상자는 58.0%, 일반관리대상자는 33.3%, 심층관리대상자는 8.7%이었다(표 9).

표 9. 자가 평가에 의한 두피·모발건강상태 특성

항목	구분	명	%
두피·모발상태	정상자	272	58.0
	일반관리대상자	156	33.3
	심층관리대상자	41	8.7

B. 두피·모발 자가 평가와 조사 특성과의 관련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 및 경제 상태인식, 한 달 용돈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10).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항목	구분	정상자	관리대상자	p-값
연령(세)	<19	129(58.1)	93(41.9)	.020
	20-24	111(53.9)	95(46.1)	
	25-29	9(64.3)	5(35.7)	
	30<	23(85.2)	4(14.8)	
학년	1	125(57.6)	92(42.4)	.961
	2	123(58.0)	89(42.0)	
	3	24(60.0)	16(40.0)	
경제상태인식	상	19(63.3)	11(36.7)	.460
	중	179(59.3)	123(40.7)	
	하	72(53.7)	62(46.3)	
한 달 용돈(만원)	<10	16(61.5)	10(38.5)	.813
	11-20	41(58.6)	29(41.4)	
	21-30	66(55.5)	53(44.5)	
	31-40	59(54.1)	50(45.9)	
	≥41	74(61.2)	47(38.8)	

2.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의 경우 음주상태 및 흡연, 운동여부, 수면시간을 두피·모발건강상태와 비교한 결과 음주상태, 흡연상태, 운동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면시간은 두피·모발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표 11).

표 11.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항목	구분	정상자	관리대상자	p-값
음주상태	현재 마심	223(58.1)	161(41.9)	.661
	과거	21(52.5)	19(47.5)	
	안 마심	28(62.2)	17(37.8)	
흡연상태	현재흡연	71(55.5)	57(44.5)	.670
	과거흡연	25(55.6)	20(44.4)	
	비 흡연	175(59.7)	118(40.3)	
운동여부	매일	24(60.0)	16(40.0)	.723
	주 1-3회	91(60.3)	60(39.7)	
	하지 않음	157(56.5)	121(43.5)	
수면시간	<6	99(53.2)	87(46.8)	.039
	7-8	152(63.1)	89(36.9)	
	>9	18(46.2)	21(53.8)	

3. 식습관 및 체형관련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식생활 및 체형관련 특성과 두피·모발건강상태는 체질량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각하는 체형에서는 마른 편 또는 보통이라 인지하는 것 보다 비만이라 인지할수록 두피·모발관리대상자가 많아졌으며, 체중조절은 감량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상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식습관상태는 두피·모발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2).

표 12. 식습관 및 체형관련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항목	구분	정상자	관리대상자	p-값
체질량지수 (kg/m ²)	>25(정상)	252(58.6)	178(41.4)	.551
	≤25(과체중)	6(50.0)	6(50.0)	
체형인식	마른 편	46(70.8)	19(29.2)	<0.001
	보통임	143(66.5)	72(33.5)	
	비만	83(43.9)	106(56.1)	
체중조절	감량	117(66.1)	60(33.9)	.006
	안함	155(53.1)	137(46.9)	
식습관상태	양호	50(83.3)	10(16.7)	<0.001
	개선요구	217(54.0)	185(46.0)	
	개선필수	5(71.4)	2(28.6)	

4. 식품섭취 빈도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대상자들의 식품섭취 빈도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의 경우 깨와 콩류는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미역, 다시마, 김, 등 푸른 생선, 우유, 계란, 녹차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3).

표 13. 식품섭취빈도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항목	구분	정상자	관리대상자	p-값
미역	거의 안 먹음	56(50.0)	56(50.0)	.095
	월 1회 이상	155(59.2)	107(40.8)	
	주 1회 이상	60(64.5)	33(35.5)	
다시마	거의 안 먹음	132(54.5)	110(45.5)	.282
	월 1회 이상	100(62.1)	61(37.9)	
	주 1회 이상	39(60.9)	25(39.1)	
김	거의 안 먹음	32(56.1)	25(43.9)	.884
	월 1회 이상	77(59.7)	52(40.3)	
	주 1회 이상	162(57.7)	119(42.3)	
깨	거의 안 먹음	65(52.4)	59(47.6)	.019
	월 1회 이상	68(51.9)	63(48.1)	
	주 1회 이상	138(65.1)	74(34.9)	
콩류	거의 안 먹음	45(47.4)	50(52.6)	.050
	월 1회 이상	82(58.6)	58(41.4)	
	주 1회 이상	144(62.1)	88(37.9)	
등 푸른 생선	거의 안 먹음	43(51.8)	40(48.2)	.137
	월 1회 이상	103(55.4)	83(44.6)	
	주 1회 이상	125(63.1)	73(36.9)	
우유	거의 안 먹음	53(55.2)	43(44.8)	.519
	월 1회 이상	67(62.6)	40(37.4)	
	주 1회 이상	151(57.2)	113(42.8)	
계란	거의 안 먹음	17(53.1)	15(46.9)	.088
	월 1회 이상	52(69.3)	23(30.7)	
	주 1회 이상	201(56.0)	158(44.0)	
녹차	거의 안 먹음	91(56.2)	71(43.8)	.744
	월 1회 이상	77(60.6)	50(39.4)	
	주 1회 이상	102(57.6)	75(42.4)	

5. 건강상태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를 비교 시 1달 이내 급 만성 질환이환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생리 상태는 불규칙할수록 두피·모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임약은 복용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복용을 할수록 두피·모발관리 대상자가 유의하게 많아졌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정상인 경우 관리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표 14).

표 14. 건강상태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항목	구분	정상자	관리대상자	p-값
1달 이내 급 만성 질환이환여부	예	33(47.8)	36(52.2)	.063
	아니오	238(59.8)	160(40.2)	
생리상태	규칙	169(62.1)	103(37.9)	.029
	불규칙	102(52.0)	94(48.0)	
피임약복용	예	9(34.6)	17(65.4)	.013
	아니오	262(59.3)	180(40.7)	
스트레스(점수)	평균±표준편차	58.5±14.2	64.1±14.8	<0.001

6. 모발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모발특성에 따른 두피상태를 보면 두피·모발건강상태는 모발에 염색이나 퍼머넌트 등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는 자연모발일 경우 보다 화학적 처리 모발인 경우 두피·모발관리대상자가 늘어나 유의한 차를 보인 반면, 모발의 굵기, 모자착용, 가발 사용여부, 샴푸 횟수, 행굼 횟수, 헤어스타일링 제품사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5).

표 15. 모발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건강상태 비교

항목	구분	정상자	관리대상자	p-값
모발상태	자연 모발	64(71.1)	26(28.9)	.005
	화학적 처리 모발	208(54.9)	171(45.1)	
모발의 굵기	굵은 모발	62(57.4)	46(42.6)	.497
	보통모발	135(61.1)	86(38.9)	
	가는 모발	64(54.7)	53(45.3)	
	아주 가는 모발	11(47.8)	12(52.2)	
모자	착용하지 않는다	152(61.8)	94(38.2)	.103
	가끔	111(52.6)	100(47.4)	
	거의 매일 사용	7(70.0)	3(30.0)	
가발사용	예	56(51.9)	52(48.1)	.152
	아니오	214(59.6)	145(40.4)	
샴푸 횟수	일주일1-2회	6(60.0)	4(40.0)	.670
	일주일에 3-4회	33(63.5)	19(36.5)	
	매일샴푸	231(57.0)	174(43.0)	
샴푸행균횟수	1-2회	55(53.4)	48(46.6)	.346
	3-4회	120(62.2)	73(37.8)	
	5-6회	69(57.5)	51(42.5)	
	7회 이상	26(51.0)	25(49.0)	
헤어스타일링	사용	62(55.9)	49(44.1)	.632
제품사용	사용하지 않음	208(58.4)	148(41.6)	

C.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발상태가 자연모발인 경우에 비해 화학적 처리한 경우 두피·모발건강에 대한 교차비는 1.83(95%신뢰구간; 1.03-3.27)이었고, 계란을 주 1회 이상 먹는 경우에 비해 월 1회 이상 먹는 경우에 대한 교차비가 0.31(95%신뢰구간; 0.16-0.61), 깨는 주 1회 먹는 경우에 비해 월 1회 이상 먹는 경우 교차비가 1.93(95%신뢰구간; 1.11-3.36)이었고, 콩류는 주 1회 이상 먹는 경우에 비해 거의 먹지 않는 경우 교차비가 1.98(95%신뢰구간; 1.02-3.83), 식습관상태는 양호에 비해 개선필수의 경우 교차비 4.17(95%신뢰구간; 1.82-9.54), 체형인지는 마른 편이라 한 경우에 비해 비만인 경우 교차비가 2.82(95%신뢰구간; 1.36-5.86),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차비는 1.01(95%신뢰구간; 1.00-1.03),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복용한 경우 교차비 4.37(95%신뢰구간; 1.64-11.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모발에 대해 퍼머넌트나 염색 등 처리를 한 경우에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좋지 않았고, 계란은 주1회 이상 먹는 경우보다는 월 1회로 자주먹지 않을 경우에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좋았고, 깨는 주1회 먹는 경우에 비해 월 1회 이상 먹는 경우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좋으며, 콩류는 주1회 먹는 경우에 비해 먹지 않은 경우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식생활 상태는 양호한 상태보다 개선필수의 경우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체형은 비만하다고 인지할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임약은 복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표 16).

표 16.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차비	95% 신뢰구간
모발상태	자연모발	1.00	-
	화학적 처리모발	1.83	1.03-3.27
나이	<19	1.00	-
	20-24	1.45	0.93-2.26
	25-29	1.30	0.37-4.59
	30<	.52	0.15-1.84
수면시간	<6	1.00	-
	7-8	.63	0.40-1.00
	>9	1.22	0.55-2.70
미역	주1회	1.00	-
	안 먹음	1.61	0.79-3.30
	월1회	1.22	0.68-2.18
깨	주1회	1.00	-
	안 먹음	1.35	0.74-2.43
	월 1회	1.93	1.11-3.36
콩류	주1회	1.00	-
	안 먹음	1.98	1.02-3.83
	월 1회	.90	0.53-1.51
계란	주1회	1.00	-
	안 먹음	.40	0.15-1.03
	월 1회	.31	0.16-.061
식습관상태	양호	1.00	-
	개선요구	.67	0.08-5.45
	개선필수	4.17	1.82-9.54
체형인식	마른 편	1.00	-
	보통	1.22	0.60-2.47
	비만	2.82	1.36-5.86
체중감량	안함	1.00	-
	함	1.49	0.92-2.41
스트레스(점수)		1.01	1.00-1.03
생리 규칙성	규칙	1.00	-
	불규칙	1.33	0.86-2.06
피임약 복용	복용 안함	1.00	-
	복용	4.23	1.58-11.31
질병 여부	없음	1.00	-
	있음	1.53	0.82-2.82

IV. 고 찰

두피·모발상태의 측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견진법으로 직접 눈으로 보거나 두피·모발진단기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이고, 둘째, 촉진법으로 손으로 직접 만져서 관찰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은 문진법으로 질문이나 두피·모발 자가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피·모발진단기를 사용하거나, 촉진법을 사용하여 두피·모발상태를 측정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분석을 위한 평가기준 요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인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단자의 주관적인 결과가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피·모발 자가 평가에 의한 측정은 대상자의 환경, 생활습관, 평소 관리방법 등의 내용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며, 두피·모발전문 관리기술 전에 반듯이 사용되는 진단방법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측정도구라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두피·모발 자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두피·모발건강상태는 정상자가 58.0%, 일반관리대상자가 33.3%, 심층관리대상자가 8.7%이었다. 미용전공 여대생의 두피·모발건강상태가 42.0%가 관리대상자에 해당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태도 및 실천행위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두피·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매우 미흡하다하였다(오선영 등, 2007). 대상자의 42.0%가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이유는 올바른 태도 및 실천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그 실천행위가 높지 않고, 또한 잦은 퍼머나 염색 등으로 인한 화학적 노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두피·모발건강상태를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로 인지하는 두피와 두피·모발건강실천행위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본 연구와 비교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이에 두피·모발건강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두피·모발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피·모발 자가 평가 도구를 이용한 연구결과,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모발상태가 자연모발일 경우보다 화학적 처리를 한 모발에서 두피·모발 관리대상자가 더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전정애(2007)는 잦은 퍼머, 염색 및 탈색이 두피·모발의 손상원인이라고 한 바 있고, 김명주 등(2006)은 스트레스, 비만, 다

이르트, 인스턴트 음식, 잦은 염색과 탈색제의 사용 등으로 모발과 두피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탈모나 모발손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하였다. 또한 이명옥과 박선주(2004)는 퍼머넌트와 염·탈색으로 인한 지나친 화학제품의 다량 사용으로 모발이 손상뿐만 아니라 두피의 손상까지 초래한다하였다. 즉,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화학적 처리를 가한 모발은 자연모발인 상태보다 화학적 물질이 두피를 자극하게 되어 두피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Healing Hair Care Institute(2002)에서는 효모, 버섯, 동물의 피부조직, 버터, 간유 및 계란의 과잉 섭취 시 탈모, 설사, 체중감소 등이 있었다 하였고, 깨,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섭취 할 경우 동맥경화, 심장병,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질환이 원인이 되며, 그 결과 두피·모발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혈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은 지방산이 혈관에 부착되어 혈액을 오염시키고, 피의 흐름이 나빠지게 되며 나아가 모발을 생성하는 모모세포에 영향을 끼쳐 세포증식 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그로 인한 모발의 노화가 촉진된다(김순옥 등, 2003). 연구결과 계란은 주1회 이상 먹는 경우보다는 월 1회로 자주먹지 않을 경우에 두피·모발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계란의 섭취에 대한 조사를 월 혹은 주 단위의 섭취 빈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계란의 과다섭취가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계란섭취빈도가 두피·모발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피·모발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식품 중 먼저, 참깨는 두피와 모발의 건강에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은깨의 검은 색소는 안토시안 성분으로 모발의 색소인 멜라닌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과 더불어 탈모예방 및 모발의 윤기에도 효과를 보였다(대한미용교수협의회, 2007). 한영숙(2007)은 해조류는 흰머리 예방 및 모발의 생장을 촉진한다고 하였으며, 해조류 중 다시마는 피부 뿐 아니라 탈모를 막고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는 식품이라 하였다. 또한, 이점숙(2003)은 검은 콩 섭취와 두피상태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두피의 정화 및 상태개선, 모발의 윤기가 회복됨이 관찰되어 콩은 두피 및 모발건강에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보고하였다. 박경숙(2005)은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에 함유되어 있는 피토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모발과 관련된 여성호르몬의 양이 증가하고 모발이 굵어지

며 건강해진다고 하였으며, 노영희b(1999)는 콩류 식품섭취빈도가 높을수록 탈모, 백모, 머릿결 손상 등의 문제점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로 깨, 해조류, 콩은 자주 섭취할수록 두피·모발건강에 좋은 식품임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깨와 콩류는 자주 섭취할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식품의 섭취 빈도에 따른 분석은 식품의 상태 및 섭취 정도, 대상자군, 조사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과거 조사된 자료와 본 연구의 결과가 상이하리라 판단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체형인식에 대한 두피·모발상태 요인을 살펴보면, 체형은 마른 편에 비해 비만으로 인식한 군에서 두피·모발상태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고, 김순옥 등(2003)은 동맥경화, 심장병, 고혈압, 비만 등의 성인병이 모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하였으나, 체형과 두피·모발건강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상자의 식생활을 판단한 결과, 식생활습관이 양호할수록 좋은 두피·모발상태를 유지함을 볼 수 있었다. 김지현(2006)은 두피·탈모관리는 전인적인 접근으로 적용되어야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피관리실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다고 하여도 고객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관리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김명우와 김성남(2007)은 규칙적인 생활습관, 식습관이 두피·모발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관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또한, 조정혜 등(2003)은 모발의 생장과 영양 상태, 재생은 전적으로 식사에서 얻어지는 영양분에 의존한다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균형적인 식습관이라 하였다. 노영희a(1999)는 여대생에게 있어서 두피·모발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정상적인 체중 관리가 두피·모발건강상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두피·모발상태 요인을 살펴보면, 이미선과 김주영(2005)은 스트레스로 인한 뭉친 근육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며 눈의 피로 및 심지어는 탈모증상까지도 일으킨다고 한바 있다. 또한, 이명옥·박선주(2004)는 두피손상요인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원인도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두피의 근육이 경직되어 두피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다하였다(이영미, 2004).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계가 자극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하였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모발성장 공장인 모세포에 음식물로 섭취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어 모발성장주기에 악영향과 함께 모발손상과 심할 경우에는 탈모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대한미용교수협의회, 2007).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는 두피·모발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된다.

피임약과 두피·모발상태와의 관련성을 보면 관리대상자가 더 증가하였다. 대한미용교수협의회(2007)에서는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이 늘고 있는 것도 여성 탈모의 원인이라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두피·모발과 관련된 호르몬은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피질, 성선(난소나 고환)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조정혜 등, 2003) 피임약은 여성호르몬과 소량의 황체호르몬을 배합한 것으로 복용 중에는 탈모수의 증가를 볼 수 있다(윤진희, 2006).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임약과 두피모발과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3개 지역 6개 대학의 미용전공 여학생 469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미용전공 여자대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대상자가 자각하는 두피·모발상태만을 가지고 두피·모발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두피·모발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미흡하다는 것이며, 셋째, 두피·모발건강에 좋은 식품을 구체적으로 분류 및 분석하지 못한 점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선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두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두피·모발건강을 위한 행동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전공 여대생들의 두피·모발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모발상태, 계란, 깨, 콩류, 식습관상태, 자각하는 체형, 스트레스, 피임약 복용여부였다. 두피·모발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하지 위해서는 두피·모발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두피·모발관리 습관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위해 두피·모발에 적합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 올바른 식생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두피·모발에 관한 지식전달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실제 두피·모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보고가 지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두피·모발건강요인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두피·모발관련 지식을 많이 보유한 일부지역 미용전공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두피·모발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미용전공 여대생들의 두피·모발건강 관련요인과 예방관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469명의 설문자료를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로지스틱을 이용하여 두피·모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피·모발 자가 평가에 따른 두피·모발상태는 정상자가 58.0%, 일반관리대상자가 33.3%, 심층관리대상자가 8.7%이었다. 두피·모발상태에 따른 관련성으로는 연령, 수면시간, 체형인식, 체중조절, 식습관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정식품섭취로는 깨와 콩류, 생리상태, 피임약복용, 스트레스점수, 모발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피·모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모발상태가 자연모발인 경우에 비해 화학적 처리한 모발의 경우 두피·모발건강에 대한 교차비는 1.83(95%신뢰구간; 1.03-3.27)이었고, 계란을 주 1회 이상 먹는 경우에 비해 월 1회 이상 먹을 경우에 대한 교차비가 0.31(95%신뢰구간; 0.16-0.61), 깨는 주 1회 먹는 경우에 비해 월 1회 이상 먹는 경우 교차비가 1.93(95%신뢰구간; 1.11-3.36)이었고, 콩류는 주 1회 이상 먹는 경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 교차비가 1.98(95%신뢰구간; 1.02-3.83), 식습관상태는 양호한 경우에 비해 개선필수의 경우 교차비가 4.17(95%신뢰구간; 1.82-9.54), 체형인지는 마른 편이라 한 경우에 비해 비만인 경우 교차비가 2.82(95%신뢰구간; 1.36-5.86),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차비가 1.01(95%신뢰구간; 1.00-1.03),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복용한 경우 교차비 4.23(95%신뢰구간; 1.58-1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두피·모발건강을 위해 여대생들 스스로가 두피·모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두피·모발관리 습관,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개인의 행동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객관적인 두피·모발상태를 파악하는 지표가 마련됨과 동시에 두피·모발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김명우, 김성남(2007). 전업주부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한국이류 산업학회지, 9(3), 336-34.
- 김명주, 오현주, 이숙자(2006). 모발미용학, 서울, 훈민사.
- 김순옥, 양미경, 이승자, 이정실, 조혜명, 정민호, 전해정(2003). 미용영양학, 서울, 수문사.
- 김지현(2006). 두피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대체영양요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 두피모발미용학회지, 2(1), 21-32.
- 김정희(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44-69.
- 노영희a(1999). 미용전공과 비전공 여대생의 모발영양지식 · 모발상태 · 모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6), 592-596.
- 노영희b(1999). 여대생들의 식습관이 모발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5), 529-525.
- 대한미용교수협의회(2007). TRICHOLOGY scalp & hair care, 서울, 청구문화사.
- 문인옥, 조성선(2000). 여대생의 모발건강과 질병요인과의 관련성,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2), 51-59.
- 박경숙(2005). 탈모예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강수(2006).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선영, 장정애, 손호은(2007). 대구·경북지역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두피관리 인식 태도 및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3(1), 123-135.
- 윤진희(2006). 모발과 두피 · 탈모에 관한 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김주영(2005). 두피마사지가 스트레스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 두피·모발 미용학회지, 1(1), 195-204.
- 이명옥 · 박선주(2004). 두피관리를 위한 아로마 요법의 이론적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0(3), 223-232.
- 이영미(2004). 여성탈모와 두피관리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3), 119-129.

- 이점숙(2003). 검은콩을 이용한 모발건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정애(2007).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숙희, 심선녀, 이용환(2006). 여성들의 두피·모발자가진단에 따른 모발건강실천행위,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2(1), 47-58.
- 조정혜, 김재경, 문영숙, 송희라, 심선녀, 오지영, 이진옥, 전선복, 정숙희, 하병조(2003). Hair&Hair Care, 서울, 훈민사.
- 한영숙, 윤미연, 전미연, 김경선, 김진이, 김혜민, 화치, 양두호(2007). 다시마를 이용한 여드름 피부관리 개선효과,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2(1), 61-66.
- DeLongis. A., Folkman, S., & Lax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6.
- Healing Hair Care Institute(2002). Hair Care ART, 현문사, p95-105.

※ 부록: 조사표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미용대학의 여학생의 두피유형 특성 및 두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의 신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힘드시지만 빠진 항목 없이 솔직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전공

왕혜자 올림

(대학 과)

I.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을 작성하거나 해당번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학년)
3. 귀하의 신장은?(cm)
4. 귀하의 체중은?(kg)
5. 귀하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상()②중상()③중()④중하()⑤하()
6. 귀하가 쓰는 용돈은 한 달에 얼마정도입니까? (원)

II. 식생활습관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을 작성하거나 해당번호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평소에 나는	예 (5점)	가끔 (3점)	아니오 (1점)
· 규칙적인 식생활			
하루에 3끼 식사를 한다.			
아침식사는 제대로 먹는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여유있게 천천히 식사를 한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			

평소에 나는	예 (5점)	가끔 (3점)	아니오 (1점)
· 균형잡힌 식생활			
곡류음식을 매끼 먹는다(밥, 빵류, 면류, 감자, 고구마 등)			
육류 반찬을 매끼 먹는다(어류, 계란, 두류, 두부 등 포함)			
채소 반찬을 매끼 먹는다(김치제외)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을 매끼 먹는다.			
우유를 매일 마신다.			
과일을 매일 먹는다.			
매끼 골고루 식사한다(곡류+육류+채소류)			

· 식생활과 건강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싱겁게 먹는다.			
동물성 기름을 자주 먹지 않는다(삼겹살, 갈비 포함)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			
과음 및 잦은 음주는 피한다.			
운동을 매일한다(1시간이상)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			

1. 다음 제시한 식품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지난 1년간 평균 섭취 빈도)를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 빈도									
	거의 안먹음	월			주			일		
		1회	2-3회	1-2회	3-4회	5-6회	1회	2회	3회	
1. 미역										
2. 다시마										
3. 김										
4. 깨										
5. 콩류(검은콩, 두부, 완두콩 등)										
6. 등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등)										
7. 우유										
8. 계란										
9. 녹차										

2. 귀하의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시간)

음주

1. 학생은 술을 마십니까?

- ① 기회가 될 때마다 마시는 편이다. ② 마시기는 하지만 마시는 기회가 없다.
③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④ 전혀 안 마신다

2. 술을 마실 때 한 번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드십니까?

- ① 마시지 않는다. ② 소주 1-2 잔(맥주 한 병 이하)정도
③ 2홉 소주 반 병(맥주 2병, 양주 3잔) ④ 2홉 소주 한 병(맥주 4병, 양주 6잔)
⑤ 2홉 소주 2 병(맥주 8병, 양주 12잔) ⑥ 2홉 소주 3 병(맥주 12병, 양주 18잔)

3. 얼마나 술을 자주 드십니까?

- ① 마시지 않는다 ② 월 1회 이하 ③ 월 2-3회 ④ 주 1-2회
⑤ 주 3-4회 ⑥ 주 5회 이상

흡연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 ① 5갑(100개비)미만 () ② 5갑(100개비) 이상 () ③ 피운 적 없음()

2.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____세

3.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 ① 피움 → 하루 평균 흡연량 _____개비()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3-1. 과거 담배를 피울 때 하루 평균 흡연량은 _____개비
 3-2. 과거 흡연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비만정도

1. 현재 당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임 ()
 ② 약간 마른편임 ()
 ③ 보통임 ()
 ④ 약간 비만임 ()
 ⑤ 매우 비만임 ()

2. 최근 1년 동안 의도적으로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
 ②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③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
 ④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

3. 귀하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주 4~5회() ③주 2~3회() ④주 1회() ⑤거의하지않는다()

3-1. 운동을 하신다면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하십니까?

- ①실외() ②실내()

3-2. 운동을 하신다면 주로 어느 시간에 하십니까?

- ①아침() ②오전() ③오후() ④저녁()

3-3. 운동 종목은? ()

건강상태

1. 당신의 건강은 대체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2. 지난 1달간 만성, 급성질환 및 사고·중독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날이 있었습니까?

- () ① 있음→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_____
 () ② 없음

3. 최근 6개월 이내 탈모나 두피 상에 문제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3-1. 이용했다면 치료받으신 질병 이름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4. 1년 이내에 탈모나 두피 상에 문제로 병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4-1. 이용했다면 치료받으신 질병 이름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다음은 학생의 지난 1년 동안의 약물 복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종류	복용 빈도					
	복용 안함	주1 회 미만	주1- 3회	주4- 6회	일1 회	일2 회 이상
다이어트 약(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약)						
다이어트 약(의사처방이 없어도 가능한 약)						
진통제						
여드름 치료제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						
갑상선 항진증 치료제						
기타						

5. 현재 생리는?

①규칙적이다() ②불규칙적이다.()

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피임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6-1로②아니오()

6-1. 복용하신다면 얼마나 정도 복용하셨습니까?

①1년() ②6개월 정도() ③3개월 정도() ④기타()

Ⅲ. 스트레스

각 문항마다 그것이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를 골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아니다 (해당없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부모				
2. 형제자매				
3. 일가 친척				
4. 가족과 보내는 시간				
5.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				
6. 성문제				
7. 친교(애정표현)				
8. 가정과 관련된 의문				
9. 친구(들)				
10. 선배나 교수				
11. 내가 하는 일의 종류				
12. 내가 하는 일의 양				
13. 일의 마감 시간이나 목표				
14. 생활비(예:음식, 옷, 주거, 보건비 등)				
15. 교육비				
16. 비상금				
17. 여가비용(예: 여흥비, 휴가비, 오락비 등)				
18. 운동				
19. 신체적 용모				
20. 의료적 도움(예: 병원, 약국 등)				
21. 나의 건강				
22. 체력				
23. 이웃				
24. 보도된 사건(뉴스)				
25. 환경(예: 교통, 공기, 소음)				
26. 정치적 혹은 사회적 문제				
27. 비축(예: 가스, 물, 석유나 연탄)				
28. 식사준비				
29. 집안일(예: 청소, 빨래 등)				
30. 집안에서의 여가(예: tv, 음악, 독서 등)				
31. 집안관리(예: 집수리, 화초관리 등)				
32. 자유시간				
33. 집밖에서의 여가(예: 영화, 스포츠, 외식 등)				
34. 식사(집에서)				
35. 가입단체나 모임				
36. 사회적 참여				

이제 당신이 답하신 각 항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많이 그렇다고 표시한 것 들 중에서 오늘을 포함한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크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을 두가지 순서대로 아래에 써 주십시오.

A.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의 번호: _____

B. 두 번째로 큰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의 번호: _____

IV. 두피, 모발 특성

다음은 두피, 모발의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 해주십시오.

[모발의 특성]

1. 모발의 현재 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①자연모() ② 퍼머넌트모() ③염색 및 탈색모() ④매니큐어,코팅모()

2. 모발의 굵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굵은모발() ②보통모발() ③가는 모발() ④아주 가는모발()

3. 모발의 손상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매우건강한편() ②건강한편() ③보통() ④손상된 편() ⑤ 매우 손상된편()

3-1. 모발의 손상정도가 있다면 주된 요소는?

①염색 및 탈색() ②퍼머넌트 웨이브()
③헤어 드라이기 및 스타일링기() ④헤어코팅이나 매니큐어()

4. 모발의 손상과 가장 관계 깊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서를 빈 칸에 적어주세요.

항목	순위
미용실에서의 머리 손질	
영양 섭취의 불균형	
생활습관 변화	
잘은 샴푸	
나이	

5. 모발의 탈락 정도는?

①많다() ②샴푸 시 에만 많다() ③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④없다.()

[두피의 특성]

1. 두피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정상두피() ②건성() ③중성() ④지성() ⑤민감성()

2. 두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탈모() ②염증() ③가려움과 비듬() ④민감성() ⑤없음()

[두피 및 모발 관리 습관]

1. 두피 또는 모발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1-3,1-4로 ②아니오()→1-1,1-2로

1-1. 향후 두피관리를 받아 볼 의사가 있는가?

- ①계획있다() ② 계획이 없다() ③모르겠다()

1-2. 두피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래 생각 하십니까?

- ①고비용() ②두피에 대한 인식부족() ③시간적인 여유부족()
④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⑤기타()

1-3. 두피관리 후 두피상태는 개선 되었습니까?

- ①매우그렇다() ②약간그렇다() ③동일하다()
④약간나빠졌다() ⑤매우 나빠졌다()

1-4. 귀하는 두피관리 후 모발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그렇다() ②약간그렇다() ③동일하다()
④약간나빠졌다() ⑤매우 나빠졌다()

2.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고비용() ②시간적여유부족() ③자가 관리()
④서비스효과의 미비() ⑤두피관리가 필요 없다()

3. 현재 모발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 ①무스() ②왁스() ③젤() ④스프레이() ⑤기타()

4. 가발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5. 발모제나 기타 탈모 관련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5-1. 사용한다면 제품은?()

6. 모자는 착용하십니까?

- ①착용하지 않는다.() ②1주일에 1~2번 착용한다.()

③1주일에3~4회 착용한다.() ④거의 매일 사용한다.()

7.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샴푸의 종류는?

- ①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②미용실에서 추천하는 제품()
③특수 제품() ④아무거나 사용()

7-1. 사용 중인 샴푸제의 제품명?()

8. 일주일 동안 샴푸 횟수는?

- ①일주일에 1~2번() ②일주일에 3~4번()
③매일 샴푸한다. () ④매일 2회 샴푸한다()

9. 샴푸 시 행구는 횟수는?

- ①1~2회() ②3~4회() ③5~6회() ④기타()

10. 샴푸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아침() ②점심() ③저녁() ④기타()

11. 린스 사용 시 적용범위는?

- ①모발전체() ②모발 끝부분() ③모발 안쪽부분() ④사용하지 않는다()

12. 린스 사용 시 행구는 횟수는?

- ①1~2회() ②3~4회() ③5~6회() ④기타()

13. 염색이나 퍼머는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회)

14. 두피 건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14-1. 사용하셨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

15. 자가 두피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용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 ①매우 긍정적으로 사용() ②긍정적() ③보통() ④부정적() ⑤매우 부정적()

V. 두피. 모발관리 자가 진단표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샴푸 후 두피가 가렵다.		
2. 비듬이 갑자기 많아졌다.		
3.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거린다.		
4. 샴푸 후 몇 시간 안에 유분이 많아 냄새가 난다.		
5. 샴푸시 모발이 급격하게 많이 빠진다.		
6. 새로 나는 모발이 급격하게 많이 빠진다.		
7. 두피가 딱딱한 편이다.		
8.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가 나오지 않는다.		
9. 모발이 윤기가 없고 두피가 건조하며 매우 가렵다.		
10. 두달에 한번이상은 퍼머, 염색, 코팅을 하는 편이다.		
11. 드라이를 매일한다.		
12.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간 당겨도 쉽게 빠진다.		
13. 염색이나 퍼머로 인해 심하게 손상 받은 적이 있다.		
14. 모발 끝이 갈라진다.		
15. 평소에 스프레이나 무스 등을 자주 사용한다.		
16. 가족 중에 선천적인 탈모증인 사람이 있다.		
17. 평소 식생활이 불규칙하다.		
18.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		
19. 항암치료나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다.		
20. 평소 편두통이나 혈압이 높다.		
21. 채소류 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		
22. 모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다.		
23. 몸에 땀이 많다.		
24. 피부에 유분기가 많은 편이다.		
25. 두피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		
26. 두피가 너무 희거나 적갈색으로 바뀌었다.		
27. 두피에 종기가 많이 생긴다.		
28.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9.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다.		
30. 평소에 샴푸보다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		

☺ 수고하셨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왕혜자 한문 : 王惠子 영문 : Wang, Hye-Ja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삼환나우빌 103-1203				
연락처	010-3311-6170	E-MAIL	hj-wang21c@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일부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두피·모발건강상태와 관련요인				
	영어 : Scalp ·Hair Health Condition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Some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 in Cosmetolog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9년 1 월 일

저작자: 왕 혜 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